

대학 야간강좌부서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 해 호 / 영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야간대학의 설립 취지는 분명히 직장인 근로자들의 주경야독 정신에 있다. 따라서 이 정신은 대학의 편제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 80년 7·30 교육조치 이후 변질된 야간대학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여야만 한다.

또한 미래의 야간대학은 주경야독의 정신 구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교육 참여의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어 산업체 학생 이외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 즉 계속교육의 이념을 실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서 언

우 리나라 최초의 야간대학은 미군정기 시절인 1946년에 국민대학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50년이 지난 현재 전국 81개 대학에서 730개 야간강좌학과를 개설하고 있고, 학생수는 대학생 총 모집정원 257,859명 중에서 야간 모집정원은 32,357명으로 총 모집정원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주경야독하는 직장인들의 배움터였던 야간대학은 제5공화국 시절인 1980년 7월 30일 교육조치에 따라 졸업정원제와 전일제 수업이 실시되면서 2부 학부, 야간교학처 혹은 야간

강좌개설부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주경야독의 정신은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야간강좌부서는 산업체 근무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일반 고교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위한 입시 작전의 한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간강좌부서에 소속된 학생들은 스스로를 야간대학 학생으로 자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들은 강좌가 야간에 개설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야간강좌부서의 학생일 뿐, 지난날의 야간대학과는 엄연히 다르고 항변하는 데서부터 주경야독 본래의 정신이 상실되었고, 전일제 수업이라는 미명 아래 야간대학의 위상이 야간

학부로 모호하게 전락되고 말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야간강좌부서의 위상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야간강좌부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야간강좌부서의 위상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46년 처음 야간대학이 설립되었을 때의 취지는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서 낮에는 직장에 근무하고, 밤에 공부하려는 주경야독의 산업역군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야간대학은 단과대학으로서 학제와 행정기구를 갖추고 모든 학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학적관리도 주·야간을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야간대학이 야간강좌학과로 전락한 근본 원인은 1980년 당시 사회문제화되고 있던 과열 입시 문제의 미봉책으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을 졸업정원의 30%를 더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있다고 본다. 각 대학에서는 학생 수용에 있어서 기존 교육 시설과 교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일수업제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81년 10월 당시 문교부가 발표한 “대학 학생정원 조정 결과 통보문”을 보면 “81학년 입학자부터 주·야간 구분은 폐지하니 산업체 근무자 등 취업자의 운영에 물의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지시에 따라 주·야간 구별이 철폐되었고, 전일제 수업을 실시하면서 야간대학이 야간학과로 변질되었다.

이 무렵, 일반 고교 재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한 방편으로 입학 커트라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야간대학을 지원하여 쉽게 입학하였다. 그러나 입학후에는 입학요강에 명시된 전제를 무시하

고 야간강좌라는 이름에 위화감과 자격지심을 느껴, 주·야간 구별을 없애려고 물리력을 동원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지금은 야간 학생이 아니라 전일제 수업의 야간강좌를 수강할 뿐이고 입시작전의 한 편법으로 선택한 학과일 따름이지, 주간학과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또한 학번이 야간강좌학과 소속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학생들의 불만이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서는 학번을 주·야간 구별 없이 혼합시켰고, 입시요강에도 주·야간 구별 없이 통·폐합해 야간대학 본래의 목적인 주경야독 정신은 전일제 수업의 확대 실시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부터 야간대학의 위상은 2부학부 혹은 야간강좌학과로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야간대학(혹은 2부대학)은 명목상 전일제 수업을 바탕으로 주·야 구별 없는 야간강좌로 변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일제 수업은 외면된 채 야간대학을 2부교학처로 명칭만 바꾸어 지금은 야간대학도 아니고 전일제 수업에 따른 야간강좌도 아닌 기형적 형태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대학 학칙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규정상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운영되고 있다.

교육기회의 확대, 교육시설의 활용을 위한 야간대학의 설립 취지는 분명히 직장인들의 주경야독 정신에 있다. 따라서 이 정신은 야간대학이라는 학제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지금은 사실상 졸업정원제가 폐지되었고, 전일제 수업도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경야독의 정신을 갖는 야간대학(2부대학)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야간대학은 주경야독의 정신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 참여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산업체 학생 이외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 즉 계속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주

민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3. 전국 대학 야간강좌부서의 현황

1946년 국민대학이 처음으로 야간대학 인가를 받은 이후 현재 81개 대학에서 730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학생수는 일반 학생이 17,213명, 산업체 학생이 15,144명 등 모두 32,357명이다. 야간강좌 모집정원 중 일반 학생이 총 모집정원의 53.2%를 차지하고, 산업체 학생 정원은 46.8%를 차지하고 있다. 각 대학의 야간강좌 개설학과수와 정원은 <표 1>과 같다.

야간대학은 사실상 그 학제가 변경되면서 각 대학마다 부르는 명칭이 가지각색이다(<표 2> 참조). 야간강좌부서의 공식명칭을 2부대학으로 호칭하고 있는 대학은 전주대와 한남대, 동국대 등 3개교이다. 2부학부, 2부교학부, 야간교학처로 부르는 대학이 3개교, 그 외는 제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야간대학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기가 어렵다. 현재 각 대학의 규정집을 보면 야간강좌부서가 대학 학칙 속의 대학 편제에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모호한 행정조직체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모든 야간대학에서 주·야간 교과과정이 동일하고, 학적관리는 차별을 두는 대학이 있으며, 주간과 혼합하여 구별 없이 관리하는 대학도 있다. 교과과정 및 학적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여 현황 파악은 어려우나, 대부분 대학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주간과 동일하며 학적관리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주·야간 구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주·야간 교과과정이 다르다고 응답한 대학은 조선대학뿐이다.

원래 직장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간 교육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설

립된 야간대학은 산업체 근무자를 100% 모집해야 하나, 현실은 일반 학생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체 근무자가 일반 고교 수험생보다 입시경쟁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체 근무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산업체 근무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전형 비율을 정원의 30% 이상으로 할 것과 선발방법을 대학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다. 산업체 근무자들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회원교의 무응답으로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고, 특별전형이 50% 이상인 대학이 32개, 40% 이하가 49개 대학이다(<표 3> 참조). 지원율을 비교해 보면, 응답한 16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정원 미달이고, 6개 대학은 주로 수도권 혹은 대도시 내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표 4> 참조).

야간 전용 강의실을 별도로 확보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주간 강의실을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전용 강의실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야간 강의실은 야간 강의에 지장이 없는 교육시설(조명, 난방시설, 무반사칠판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업시간은 대학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은 대부분 50분 수업으로 5교시까지 실시하고, 도시에서 떨어진 대학은 교통 관계로 인하여 주로 45분 수업으로 5교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45분 수업을 하는 대학이 32개, 50분 수업이 11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전일제 수업을 불허하는 대학은 15개, 일부 전일제가 12개 대학, 전면실시는 6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다. 45분 수업에 대한 5분 수업 결손 등록금 차등 시비가 문제화되고 있다(<표 5> 참조).

각 대학마다 전임교수들이 야간 강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야간 학생들이 주·야

간을 차별한다고 불평하는 원인이 된다. 시간강사 의존도가 50% 이상인 대학이 13개나 된다. 주로 1학년 교양과정에서 강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1학년 교양과정이 인성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시간강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표 6〉 참조). 또한 교직이수과정은 야간강좌부서의 학생들에게도 실시되어야 한다. 현재 미개설 대학이 28개로 개설된 곳보다 많은데, 대부분 개설을 희망하고 있다(〈표 7〉 참조).

도서관은 교수 및 학생의 연구 학습을 위한 학술연구 조사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 봉사하는 기관이다. 특히 학생에게는 학습과 교양을 위한 자료 검색을 도와주고, 자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기교육의 장이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 주·야간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야간 학생을 위해 별도로 연장해서 운영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후생복지 시설(식당, 매점, 음악감상실, 문방구 등)은 교육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주·야간 공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22시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야간학생을 위해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대학에서 야간학생을 위해 연장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표 8〉 참조).

산업체 근무자를 제외한 일반 야간학생들을 위해 취업전담부서를 둔 대학은 6개이고, 주간학생을 위한 취업대책부서에서 함께 취급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취업률은 무응답이 많아서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다(〈표 9〉 참조).

야간강좌부서가 대학 편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단과대학의 학생회처럼 학생회 조직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학에서 야간강좌부서의 학생회가 조직되어 야간학생들의 권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학생회 조직

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야간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문제는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 중심에 위치한 대학들은 교통에 별 문제가 없지만, 대도시를 벗어난 대학들의 경우 학교버스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야간강좌부서에서 야간학생을 위한 행정 서비스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많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증명서 발급은 주간에 본부에서 하고, 야간학과의 학사업무는 야간강좌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대학이 많다(〈표 10〉 참조).

전문대학만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취직하는 인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야간강좌부서에서 대학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에 기여해야 한다. 1994년 일반고교와 실업고교생의 취업자수는 24만 명 정도이고, 전문대학 취업자수는 7만여 명이 된다. 이러한 학생들이 2년 후에는 산업체 근무자로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표 11〉, 〈표 12〉 참조).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야간강좌부서의 위상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 학칙에서 야간대학의 학제가 폐지되어 야간강좌개설부, 2부수업부, 2부교학처, 야간강좌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된 후, 대학 편제에서 제외된 행정기구로 존재하고 있다. 본래 야간대학의 정신인 주경야독의 학생만을 교육할 수 있는 야간대학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1980년 졸업정원제와 전일제 수업이 실시되었으나 1988년 이후 졸업정원제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전일제 수업은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일제 수업을 폐지하거나, 그렇지 못한 대학에서는 주간학생만 야간강좌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학생은 주간

강좌에서 수강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주·야간을 구별하고, 학적 관리도 구별하는 엄격한 학사행정을 통하여 야간대학의 학제로 환원시켜야 한다. 또한 야간대학은 주경야독의 정신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사회교육 참여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정규 학생 이외의 성인들을 위한 교육, 즉 계속교육이라는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는 평생교육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2) 산업체 근무자들의 정원미달 사태

각 대학마다 산업체 근무자의 특별전형 비율이 다르고 선발방법도 다르다. 수도권 대학이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들은 정원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지방대학과 대도시로부터 거리가 먼 위치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이 미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결손 정원을 보충하기 위해 일반학생들을 받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이 입학후에는 주간학생과 동일한 학적 관리를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하게 된다. 결국 전일제 수업과 주·야간 구별 없는 학적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야간대학의 위상이 야간강좌학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산업체 근무자를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100%로 하여 장차 교육시장 개방, 대학입학 정원 자율화 및 대학진학 인구 감소 등으로 주간대학이 정원미달 사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야간대학의 정원미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형방법을 개선한다.

그 개선방안으로서 첫째는 결손 정원을 보충하기 위해 편입학 제도를 야간대학에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 둘째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야간강좌부서에 특별전형으로 우선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편입학 제도는 대학간의 질서를 유지하고 중·소 규모 대학을 보호·육성하는 측면에서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만 허용하고, 4년제 대학간에는 허용

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산업체 근무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입학전형시 우대 등의 방법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 명시된 ‘열린교육사회’(Edutopia)를 건설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야간대학의 정원 확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정원의 자율적 운영과 휴학, 복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야간대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3) 야간 수업시간의 배분

야간강좌부서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주간학생과 똑같은 교과과정, 졸업학점, 졸업연한을 적용하기 때문에 수업시간 배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야간에는 50분 수업, 5교시 강의가 불가능하여 45분 수업을 실시하므로, 이에 따른 5분 수업 결손에 대한 등록금 차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일 5교시 수업을 할 경우 하교시 시내버스 운행 단절로 인한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연한을 연장 실시하여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 8년 이내로 한다. 둘째, 시간제 등록제를 실시한다. 셋째, 학점당 등록금제를 실시한다. 넷째, 계절학기를 운영한다.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면 일일 3~4교시 50분 수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5분 수업 결손에 대한 학생들의 개선요구도 해결되고, 등·하교시 교통문제도 해결된다.

4) 학사제도

현행 야간강좌의 학사제도는 주간과 완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야간대학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학과마다 특색 있는 교과과정을 시행하여 주간과는 차별화된 학사운영이 요구된다. 현재는 주·야간 구별 없는 학적 관리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야간학생은 주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둘째, 교과과정을 야간학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편해야 한다. 셋째, 주·야간 학적 관리를 구별해야 한다. 넷째, 실무중심 교육과 사회재교육(평생교육, 계속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5) 교직과목의 이수 차별

교직이수과정은 주간학과에는 허용하면서, 야간학과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주·야간 학생간의 차별대우이며, 직업선택의 평등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야간학과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과가 있으므로, 이들 학과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간과 동일하게 허용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학생들에게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6) 도서관 및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도서관은 교수 및 학생의 연구학습을 위한 학술연구 조사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 봉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기관이 대학행정 편의에 따라 주로 주간학생들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학생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대출 시간 연장과 야간대학 내에 24시까지 사용 가능한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여 LAN 시스템으로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사기 이용 시간도 연장하여 학생들이 자료복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학의 후생복지 시설은 교육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학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도 대학이나 업자 편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따라서 야간학생들을 위하여 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든지 별도의 전용 후생 시설을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7) 등·하교시 교통

야간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문제는 대학이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와 멀리 위치한 대학은 하교시에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시간제 등록제, 학점당 등록금제, 졸업연한 연장 등을 실시하면 일일 3~4교시 50분 수업이 가능하므로 교통문제는 해결된다.

8) 대학평가시 교수 대 학생 비율 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학평가에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야간강좌부서의 학생 수까지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야간강좌부서를 둔 대학과 없는 대학 간의 평가치가 큰 차이를 나타내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나 야간강좌는 주간대학의 교육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산업체 근무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사립대학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 대 학생 비율 산정은 대학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전국 대학 야간강좌 부서장 정기총회 및 세미나가 1995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참석한 각 대학 부서장이 건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야간강좌부서의 명칭은 통일하고 대학편제 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 이수를 허가해야 한다.

③ 대학 평가시 교수 대 학생수 비율 계산에 야간학생 정원을 제외시켜야 한다.

④ 5·31 교육개혁안 중에 시간제등록, 학점당 등록금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전문대학 졸업자가 야간학과에 쉽게 편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⑥ 국립대학의 경우, 야간학과 개설시 설치령 개정을 야간학과와 병행하여 운영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하고, 2부 담당 교직원에 대한 법적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⑦ 야간강좌의 강사료는 세금부과가 없도록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⑧ 야간강의는 전임교수가 전담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⑨ 군 위탁 학생들의 경우, 재학기간 동안 원거리 전출이 없도록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⑩ 산업체 근무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야간대학 입학에 대폭 허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⑪ 2부 근무 교직원 처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5. 결 언

1980년 7·30 교육조치로 실시된 졸업정원제와 전일수업제로 야간대학 본래의 위상이야

간학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1988년 이후로 졸업정원제는 폐지되었고, 전일수업제도 사실상 그 효력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야간대학의 위상을 환원시킬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야간대학 본래의 취지인 주경야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산업체 근무자나 농어촌 학생, 장애자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도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기술과 지식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하며, 지역주민들에게도 열려 있는 평생교육장으로서 야간대학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

(※ 본문에 관련된 표는 이하 뒷면에 수록함.)

주해호/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대학에서 석사, 뉴욕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욕 대학 강사,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영남대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전국 야간강좌부서장 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동제어』 등이 있고, “퍼지제어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표 1〉 전국 야간감좌부서의 현황

(1994. 10. 조선일보)

대 학	야간모집 학 과 수	총모집 인 원	특별전형 인 원	%	대 학	야간모집 학 과 수	총모집 인 원	특별전형 인 원	%
금 오 공 대	5	260	78	30	부 산 여 대	6	240	96	40
순 천 대	2	100	40	40	부 산 외 대	11	470	235	50
제 주 대	4	203	100	49	삼 육 대	4	160	16	10
창 원 대	6	230	88	38	상 명 여 대	8	390	195	50
한 국 체 육 대	4	240	72	30	상 지 대	5	200	80	40
서울시립대	9	372	148	40	서 경 대	18	1,000	400	40
가 야 요 업 대	4	180	90	50	서 남 대	13	570	228	40
강 남 대	14	570	171	30	서 울 여 대	6	302	90	30
건 국 대	2	120	24	20	선 문 대	3	180	90	50
건 양 대	4	170	51	30	성 결 대	6	230	92	40
경 기 대	23	1,025	512	50	성 균 관 대	16	720	360	50
경 남 대	12	610	183	30	성 신 여 대	9	360	180	50
경 산 대	4	160	80	50	세 명 대	9	340	136	40
경 성 대	11	480	144	30	세 종 대	3	220	110	50
경 원 대	9	300	90	30	수 원 대	6	219	110	50
경 주 대	2	80	32	40	숙 명 여 대	10	540	324	60
경 회 대	4	180	72	40	순 산 대	3	110	33	30
계 명 대	17	750	300	40	송 실 대	17	968	458	47
고 신 대	2	80	24	30	아 세 아 신 대	2	80	40	50
관 동 대	10	550	275	50	영 남 대	14	810	243	30
광 운 대	2	79	32	40	영 남 신 대	1	30	12	40
국 민 대	10	550	480	87	용 인 대	10	400	160	40
군 산 대	6	280	112	40	울 산 대	5	200	60	30
단 국 대	10	480	240	50	원 광 대	12	520	156	30
대 구 대	10	443	132	30	진 주 대	13	640	256	40
대 불 공 대	3	120	60	50	우 석 대	9	370	185	50
안 양 대	14	515	206	40	조 선 대	13	720	360	50
대 전 대	13	470	188	40	중 부 대	7	290	116	40
대 진 대	11	441	176	40	중 앙 대	3	163	80	49
동 국 대	17	825	393	48	청 주 대	11	480	192	40
동 덕 여 대	12	511	204	40	피 어 선 대	10	430	201	47
동 서 공 대	10	390	156	40	한 남 대	10	420	170	40
동 신 대	11	411	164	40	한 서 대	4	170	85	50
동 아 대	10	390	117	30	한 성 대	8	350	140	40
동 양 공 대	2	120	48	40	한 신 대	8	330	132	40
동 의 대	10	360	108	30	협 성 대	10	390	195	50
명 지 대	8	450	225	50	호 남 대	11	470	235	50
목 원 대	8	290	116	40	호 남 신 대	1	40	8	20
배 재 대	10	420	210	50	호 서 대	8	400	200	50
경 북 산 업 대	22	1,110	880	80	서 울 산 업 대	29	1,280	1,024	80
삼 척 산 업 대	21	840	840	100					

* 총계 : 81개교 730개 학과 총모집인원 : 32,357명 일반학생 : 17,213명 산업체학생 : 15,144명

〈표 2〉 전국 야간대학의 명칭

명 칭	대 학 수	명 칭	대 학 수
2부	1	야 간 교 학 과	2
2 부 대 학	3	야 간 교 학 처	3
2 부 학 부	3	야 간 교 학 부	1
2 부 수 업 부	1	야 간 학 부	1
2 부 교 학 과	1	야 간 강 좌 부	1
2 부 교 학 처	1	야 간 강 좌 개 설 부	1
2 부 교 학 부	3	기 타	11

〈표 3〉 특별전형 비율

구 분	30% 이하	40%	50%	60%	70% 이상
대 학 수	19	30	27	1	4

〈표 4〉 지원을 비교

구 분	정 원 미 달	정 원 초 과
대 학 수	10	6

〈표 5〉 수업시간 비교

구 분	45분수업	50분수업	전면전일제수업	일부전일제수업	전일제불허
대 학 수	32	11	6	12	15

〈표 6〉 시간강사 의존도 현황

구 분	40% 이하	50%	60%	70%	80%	90% 이상
대 학 수	20	7	3	1	1	1

〈표 7〉 교직이수과정 개설 현황

구 분	개 설	미 개 설	개 설 회 망
대 학 수	15	28	20

〈표 8〉 후생복지시설 운영시간 현황

구 분	후생시설 운영시간		복지시설 운영시간	
	19시까지	22시까지	20시까지	22시까지
대 학 수	6	31	4	26

〈표 9〉 야간대학 취업전담부서 설치 유무 및 취업률 비교

구 분	주·야간 동일 취급	야간 학생 전담부서	취업률(1994년)				
			50% 이하	60%	70%	80% 이상	미 상
대 학 수	34	6	2	3	2	2	39

<표 10> 야간대학의 행정서비스 현황

구 분	계 증 명 서 발 급		학 사 업 무	
	직 접	본 부	전 부	일 부
대 학 수	14	30	19	17

<표 11> 일반고교 및 실업계고교 학생 진학자 및 취업자 현황

연도	학생수		재학생수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일반 고교	실업 고교	일반 고교	실업 고교	일반 고교	실업 고교	일반 고교	실업 고교	일반 고교	실업 고교
1991	1,085	617	1,406,891	804,021	482,131	272,365	229,068	21,122	49,603	271,344
1992	1,058	677	1,313,081	812,492	465,611	274,677	229,891	23,851	50,129	218,888
1993	1,039	718	1,237,182	832,028	449,910	272,541	250,786	27,979	46,131	209,871
1994	1,046	738	1,209,330	851,495	423,832	263,962	271,382	39,914	37,887	199,088

*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통계편람』, 1994.

<표 12> 전문대학 졸업자 및 취업자 현황

연도	졸업자수	4년제대학 진학자수	취업자수	군입대자
1991	93,166	6,875	57,078	12,422
1992	106,417	7,878	64,103	13,378
1993	111,855	9,399	65,020	12,740
1994	128,366	8,417	73,665	12,936

* 국립교육평가원, 『교육통계편람』, 1994.